

이 자료는 2023년 1월 27일(금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동정자료



■ 매수 : 2매 ■ 사진 :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(press.webhard.co.kr) ID/PW:press1

담당 :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	2133-6205	신문팀장	2133-6207	담당자	2133-6251
박 경 환		천 세 은		박 원 오	

오세훈 시장, 25개 구청장과 한파대비 회의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(금) 8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(6층)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자치구청장과 '한파대비 시·자치구 구청장 회의'를 갖고 한파 대책을 논의한다.
- 오 시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확대,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취약계층 난방 물품 지원 확대,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확대 등 자치구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.
- 서울시는 26일(목) 대책발표를 통해 어르신, 아동, 장애인,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비 34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.
 -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씩 총 300억 원의 난방비를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급한다.
 - 관내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937개소(노인요양시설, 아동양육시설, 노인·장애인 종합복지관 등)에 특별 난방비 35억 원을 지원한다.

-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 1,458개소에 5개월간 11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.
- 또한 3월 15일(수)까지 「2022 겨울철 종합대책」을 통해 노숙인 방한용품 80,600점과 쪽방 주민 생필품 41,185점을 지원하고 26만 저소득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.

「한파대비 시·자치구 구청장 회의」 참석일정

시 간	내 용	비 고
08:00~08:10 (10')	◦ 모두 발언(시장 / 구청장협의회장)	공개
08:10~08:15 (5')	◦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추진 협조 요청	비공개
08:15~08:20 (5')	◦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-구 협력 강화	
08:20~08:25 (5')	◦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확대	
08:25~08:35 (10')	◦ 한파대책 우수자치구 사례 발표	
08:35~08:45 (10')	◦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	

※ 관련부서 : 행정국 행정팀장 김현정 ☎2133-5802